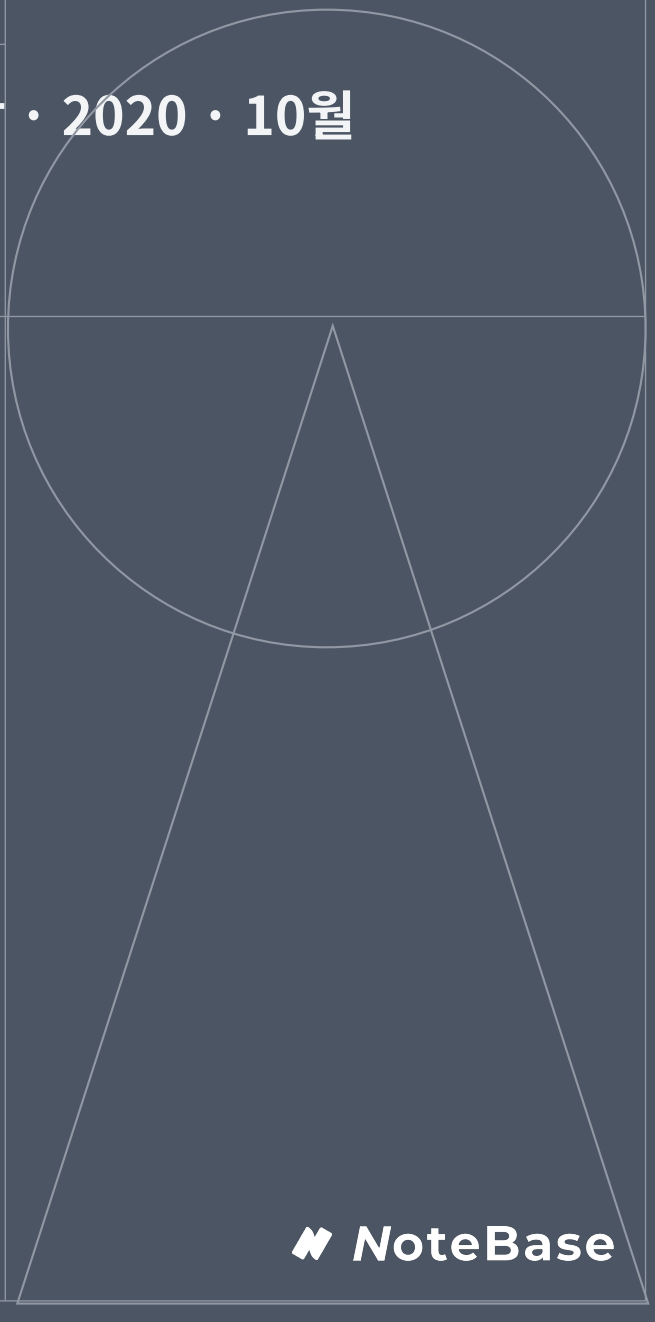
#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20 · 10월



NoteBase

#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20 · 10월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20 · 10월**

**문 1. 측정기준에 관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규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측정기준은 측정 대상 항목에 대해 식별된 속성으로서 측정기준의 종류에는 역사적 원가, 공정가치 또는 이행가치 등이 있다.
ㄴ. 부채가 발생하거나 인수할 때의 역사적 원가는 발생시키거나 인수하면서 수취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포함한 가치이다.
ㄷ. 시장 조건에 따른 거래가 아닌 사건의 결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가를 식별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의 현행가치가 최초 인식 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된다.
ㄹ. 자산의 공정가치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거래원가로 인해 증가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측정기준의 정의와 역사적 원가, 공정가치, 현행가치의 구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역사적 원가: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측정하는 기준이다. 자산은 지급대가에 거래원가를 더하고, 부채는 수취대가에서 거래원가를 차감하는 구조이다.
공정가치: 측정일 현재 시장참가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의 가격이다. 거래원가는 공정가치 자체에 가산되지 않는다.
현행가치: 측정일 현재의 조건을 반영한 가치이다. 시장 조건에 따른 거래가 아닌 사건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원가를 식별할 수 없으면 최초 인식 시 현행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ㄱ과 ㄷ만 옳은 조합이다. ㄱ은 측정기준을 측정 대상 항목의 식별된 속성으로 보고 역사적 원가, 공정가치, 이행가치 등을 예로 든 설명이므로 맞다. ㄷ도 비시장조건 사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식별할 수 없을 때 현행가치를 최초 인식의 간주원가로 사용하는 설명이므로 맞다.
② X: ㄹ이 틀려서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거래원가로 인해 증가"이다. 공정가치는 시장기준 가격이며 자산 취득 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더해 높아지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자산의 공정가치는 거래원가와 별개로 측정된다"이다.
③ X: ㄱ과 ㄷ은 맞지만 ㄹ이 틀려서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공정가치는 거래원가로 인해 증가할 수 있다"이다. 올바르게는 "공정가치는 거래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이다.
④ X: ㄴ과 ㄹ이 틀려서 오답이다. ㄴ의 틀린 표현은 "수취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포함한 가치"이다. 부채의 역사적 원가는 수취한 대가에서 거래원가를 차감한 가치이므로 올바르게는 "수취한 대가에서 거래원가를 뺀 가치"이다. ㄹ도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한 점이 틀렸다.

### 오답 포인트

자산의 역사적 원가와 부채의 역사적 원가를 같은 방향으로 외우면 ㄴ에서 틀리기 쉽다. 또한 공정가치를 취득원가처럼 생각해 거래원가를 붙이면 ㄹ에 속기 쉽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문장별로 맞고 틀림을 가른 뒤 조합을 고르면 된다. 역사적 원가는 최초 거래가격 기준, 공정가치는 현재 시장가격 기준, 현행가치는 현재 조건 반영이라는 축으로 나누면 빠르게 판별된다.

### 암기 포인트

역사적 원가는 최초 거래, 공정가치는 현재 시장, 부채 역사적 원가는 수취대가에서 거래원가 차감이다.

NoteBase

**문 2. (주)서울은 취득원가가 ₩200,000이고 잔존가치가 ₩20,000으로 추정되는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예상하고 정액법을 적용하여 6년 간 상각하여 왔다. 7차년도에 동 유형자산을 8년 동안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재추정하였고, 잔존가치도 ₩5,000으로 재추정하였다. 7차년도의 감가상각비는?**

① ₩10,000

② ₩10,875

③ ₩11,125

④ ₩12,875

**정답 2번**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감가상각의 회계추정 변경이 발생했을 때 변경 시점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내용연수에 전진적으로 배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취득원가 200,000원, 최초 잔존가치 20,000원, 최초 내용연수 10년, 정액법, 6년간 상각하였다.
구해야 할 값: 7차년도의 감가상각비이다.
주의할 조건: 내용연수와 잔존가치의 재추정은 회계추정 변경이므로 과거 감가상각을 고치지 않고 변경 시점 이후에만 반영한다.

### 사용할 공식

연간 감가상각비는 (변경 시점 장부금액 - 재추정 잔존가치) ÷ 재추정 잔여 내용연수로 계산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내용연수와 잔존가치의 변경이 회계추정 변경이어서, 7차년도부터는 기존 취득원가가 아니라 6년 상각 후 남아 있는 장부금액을 새 추정치에 따라 다시 배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 계산 과정

1. 최초 연간 감가상각비는 $(200,000 - 20,000) \div 10 = 18,000$원이다.
2. 6년간 감가상각누계액은 $18,000 \times 6 = 108,000$원이고, 7차년도 초 장부금액은 $200,000 - 108,000 = 92,000$원이다.
3. 재추정 후 남은 감가상각대상액은 $92,000 - 5,000 = 87,000$원이다.
4. 7차년도 감가상각비는 $87,000 \div 8 = 10,875$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10,000원은 7차년도 감가상각비를 잘못 계산한 값이다. 재추정 시에는 6년 상각 후 장부금액 92,000원과 새 잔존가치 5,000원을 함께 반영해야 하므로 올바른 값은 10,875원이다.

② O
6년 상각 후 장부금액 92,000원에서 재추정 잔존가치 5,000원을 차감한 87,000원을 남은 8년으로 나누면 10,875원이다. 따라서 정답에 해당한다.

③ X
11,125원은 재추정 후 남은 감가상각대상액을 잘못 잡은 계산 결과이다. 변경 시점 장부금액 92,000원에서 재추정 잔존가치 5,000원을 차감한 뒤 8년으로 나누어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10,875원이다.

④ X
12,875원은 재추정 시점 이전의 원가 배분을 잘못 끌고 온 값이다. 회계추정 변경은 소급하지 않고 당시 장부금액을 남은 기간에 전진적으로 배분하므로 7차년도 감가상각비는 12,875원이 아니라 10,875원이다.

**오답 포인트**

감가상각 추정 변경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기존 취득원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거나, 재추정 잔존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이 문항은 6년간 이미 상각한 금액은 확정되어 있고, 남은 장부금액만 새 추정치로 나눈다는 점을 놓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감가상각 추정 변경 문제는 먼저 기존 연간 감가상각비와 누계액으로 변경 시점 장부금액을 구한 뒤, 그 장부금액에서 새 잔존가치를 차감하고 남은 내용연수로 나누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회계추정 변경은 소급 수정이 아니라 장부금액 기준의 전진 배분이다.

NoteBase

**문 3. ㈜서울은 20X1년 초 ㈜한국이 발행한 사채(액면금액 ₩100,000, 표시이자율 연 10%, 매년 말 이자지급)를 ₩90,000에 취득하고, 이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한국이 발행한 사채의 20X1년말 공정가치가 ₩95,000인 경우, ㈜한국이 발행한 사채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서울의 20X1년도 총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① ₩10,000 감소

② 영향 없음

③ ₩10,000 증가

④ ₩15,000 증가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채무상품의 총포괄손익이 보유기간 총수익과 같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취득가 90,000원, 액면금액 100,000원, 연 이자 10,000원, 기말 공정가치 95,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이 사채 관련 회계처리가 20X1년도 총포괄손익에 미치는 순영향이다.
주의할 조건: 총포괄손익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합한 값이므로 이자수익과 공정가치 변동을 함께 본다.

**사용할 공식**

총포괄손익 영향 = 당기 중 현금이자 수취액 + 기말 보유가치 - 기초 취득가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FVOCI 채무상품은 이자수익은 당기손익,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나뉘어 인식되지만, 총포괄손익은 둘을 합친 전체 보유수익이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연 이자 현금수익은 100,000원 × 10% = 10,000원이다.
2. 기말 보유가치는 공정가치 95,000원이다.
3. 따라서 총포괄손익 영향은 10,000원 + 95,000원 - 90,000원 = 15,000원 증가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총포괄손익이 10,000원 감소하지 않는다. 취득가 90,000원에서 기말 보유가치 95,000원으로 5,000원 상승했고, 이자수익 10,000원도 있으므로 감소가 아니라 15,000원 증가이다. 틀린 표현은 '10,000 감소'이고, 올바르게는 '15,000 증가'이다.
② X: 영향이 없지 않다. 이자수익과 공정가치 상승이 모두 반영되므로 총포괄손익은 변한다. 틀린 표현은 '영향 없음'이고, 올바르게는 '15,000 증가'이다.
③ X: 10,000원 증가만 반영하면 이자수익만 보고 기초 취득가 대비 기말 보유가치 상승분 5,000원을 빠뜨린 셈이다. 틀린 표현은 '10,000 증가'이고, 올바르게는 '15,000 증가'이다.
④ O: 이자수익 10,000원과 기초 취득가 대비 기말 보유가치 상승분 5,000원을 합한 총 보유수익이 15,000원이므로 옳다.

### 오답 포인트

FVOCI라는 분류 때문에 공정가치 변동만 떠올리거나, 반대로 이자수익만 떠올리면 오답이 나온다. 이 문항의 함정은 '당기손익'과 '총포괄손익'을 구분하지 않고 한쪽만 계산하는 데 있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금융자산의 총포괄손익을 묻는 문제는 먼저 현금이자 등 당기 수익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기초 취득가와 기말 보유가치 차이를 더해 전체 보유수익을 계산하면 된다. 분류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배분을 바꿀 수는 있어도 총액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는 점을 먼저 잡으면 된다.

### 암기 포인트

총포괄손익 = 당기 중 실현수익 + 기말 보유가치 - 기초 투자원가이다.

NoteBase

**문 4. 12월 결산법인 (주)서울은 20X1년 2월 20일 (주)경기의 주식 100주를 취득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분류하였다. 20X1년 12월 31일 (주)경기의 1주당 공정가치는 ₩1,200이다. 20X2년 3월 1일 (주)경기는 무상증자 20%를 실시하였으며, (주)서울은 무상신주 20주를 수령하였다. 20X2년 7월 1일 (주)경기주식 60주를 ₩81,000에 처분하고 거래원가 ₩1,000을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였을 경우 동 거래가 20X2년 (주)서울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① ₩21,000 증가

② ₩20,000 증가

③ ₩9,000 증가

④ ₩8,000 증가

**정답 2번**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무상증자 후 주당 장부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처분손익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는 문제이다.

### 조건 정리

20X1년 말 보유주식은 100주이고 주당 공정가치는 1,200원이므로 장부금액은 120,000원이다.
20X2년 3월 1일 무상증자 20%로 20주를 추가로 받아 총 120주가 된다.
무상증자는 총 장부금액을 늘리지 않고 주식 수만 늘리므로 주당 장부금액만 재계산한다.
20X2년 7월 1일 60주를 81,000원에 처분하고 거래원가 1,000원을 차감한 순수령액은 80,000원이다.

### 사용할 공식

처분손익 = 순처분대가 - 처분시점 장부금액
무상증자 후 주당 장부금액 = 기존 총 장부금액 ÷ 무상증자 후 총 주식 수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무상증자는 보유자에게 새로운 경제적 자원을 추가로 주는 거래가 아니라 기존 지분을 더 많은 주식 수로 나누는 거래이므로 총 장부금액은 그대로 두고 주당 금액만 낮추기 때문이다.

### 계산 과정

1. 20X1년 말 장부금액은 100주 × 1,200원 = 120,000원이다.
2. 무상증자 후 총 주식 수는 120주이므로 주당 장부금액은 120,000원 ÷ 120주 = 1,000원이다.
3. 처분한 60주의 장부금액은 60주 × 1,000원 = 60,000원이다.
4. 순처분대가는 81,000원 - 1,000원 = 80,000원이다.
5.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증가액은 80,000원 - 60,000원 = 20,000원이다.

NoteBase

### 선지 판단

1번: X. 21,000원 증가는 거래원가 1,000원을 빼지 않고 81,000원 - 60,000원으로 계산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처분대가를 순액이 아니라 총액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순수령액 80,000원에서 장부금액 60,000원을 차감해 20,000원 증가이다.
2번: O. 무상증자 후 주당 장부금액은 1,000원이고, 60주의 장부금액은 60,000원이다. 순처분대가 80,000원과 비교하면 처분이익 20,000원이 발생하므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000원 증가한다.
3번: X. 9,000원 증가는 무상증자 후에도 주당 장부금액을 1,200원으로 그대로 두고, 거래원가도 빼지 않은 81,000원 - 72,000원으로 계산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무상증자 후 주당 장부금액이 변하지 않는다고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총 장부금액 120,000원을 120주에 재배분해 주당 1,000원으로 본다.
4번: X. 8,000원 증가는 거래원가는 반영했지만 무상증자 후 주당 장부금액을 재계산하지 않아 80,000원 - 72,000원으로 계산한 값이다. 틀린 표현은 처분원가를 72,000원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60주 × 1,000원 = 60,000원이다.

### 오답 포인트

무상증자를 받으면 이익이 생긴다고 착각하거나, 무상증자 후에도 주당 장부금액 1,200원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 또 처분손익 계산에서 거래원가를 빼지 않고 총매각대금으로 계산하면 21,000원 오답이 나온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금융자산 계산형 문제는 먼저 직전 장부금액을 확정하고, 무상증자·주식분할처럼 총 장부금액은 유지되고 주식수만 바뀌는 사건인지 확인한 뒤, 재계산한 주당 장부금액으로 처분원가를 구하고 마지막에 거래원가를 반영한 순처분대가와 비교한다.

### 암기 포인트

무상증자는 총 장부금액 불변, 주당 장부금액만 하락, 처분손익은 순처분대가와 재계산한 장부금액의 차이이다.

NoteBase

**문 5. <보기>는 (주)서울의 재무비율과 관련된 자료이다. 재무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재무상태표 항목
(1) 평균 총자산: ₩40,000 (2) 평균 자기자본: ₩10,000
•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1) 매출액: ₩20,000 (2) 당기순이익: ₩2,000
• 자기자본이익률은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레버리지비율의 곱으로 계산된다.

① 레버리지비율은 3배이다.

② 매출액순이익률은 10%이다.

③ 총자산회전율은 0.5회이다.

④ 자기자본이익률은 20%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듀퐁분석에서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레버리지비율을 계산해 자기자본이익률을 검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평균 총자산 40,000원, 평균 자기자본 10,000원, 매출액 20,000원, 당기순이익 2,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은 각 재무비율의 수치와 선지의 옳고 그름이다.
주의할 조건은 레버리지비율을 평균 총자산 ÷ 평균 자기자본으로 계산한다는 점이다.

**사용할 공식**

매출액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 ÷ 매출액이다.
총자산회전율은 매출액 ÷ 평균 총자산이다.
레버리지비율은 평균 총자산 ÷ 평균 자기자본이다.
자기자본이익률은 매출액순이익률 × 총자산회전율 × 레버리지비율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에서 자기자본이익률이 세 비율의 곱으로 계산된다고 직접 제시했기 때문이다.

NoteBase

### 계산 과정

1. 매출액순이익률은 2,000 ÷ 20,000 = 0.1이므로 10%이다.
2. 총자산회전율은 20,000 ÷ 40,000 = 0.5회이다.
3. 레버리지비율은 40,000 ÷ 10,000 = 4배이다.
4. 자기자본이익률은 10% × 0.5 × 4 = 20%이다.

### 선지별 해설

① X. 레버리지비율은 3배가 아니라 4배이다. 평균 총자산 40,000원을 평균 자기자본 10,000원으로 나누면 4가 나온다. 틀린 표현은 '3배'이고, 올바르게는 '레버리지비율은 4배이다'이다.
② O. 매출액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 ÷ 매출액이므로 2,000 ÷ 20,000 = 10%이다.
③ O. 총자산회전율은 매출액 ÷ 평균 총자산이므로 20,000 ÷ 40,000 = 0.5회이다.
④ O. 자기자본이익률은 매출액순이익률 × 총자산회전율 × 레버리지비율이므로 10% × 0.5 × 4 = 20%이다.

###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실수는 레버리지비율의 분모와 분자를 뒤섞거나, 총자산 40,000원과 자기자본 10,000원의 차이 30,000원을 끼워 넣어 3배처럼 오인하는 점이다. 이 문항은 다른 세 비율이 모두 자연스럽게 맞기 때문에 레버리지비율 정의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듀퐁분석 문제는 먼저 순이익률, 회전율, 레버리지비율을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한 뒤 마지막에 세 값을 곱해 자기자본이익률과 대조하면 된다. 숫자가 단순해 보여도 비율의 정의를 먼저 확정해야 오답을 피할 수 있다.

### 암기 포인트

듀퐁분석은 순이익률 × 총자산회전율 × 총자산/자기자본 = 자기자본이익률이다.

NoteBase

**문 6. 12월 결산법인 (주)서울은 20X1년 12월 1일 고객에게 A제품을 ₩50,000(원가 ₩40,000)에 인도하고 현금을 수령하였으며, (주)서울은 20X2년 3월 31일 동 A제품을 고객으로부터 ₩58,000에 재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20X2년 3월 31일 A제품의 시장가치는 20X1년 12월 1일 예상과 동일한 ₩56,000이며, (주)서울은 20X2년 3월 31일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다. 동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주)서울은 20X1년 12월 1일 해당거래를 리스계약으로 회계처리 한다.

② (주)서울은 20X1년 12월 31일 해당거래로 인식할 이자비용은 없다.

③ (주)서울은 20X1년 12월 1일 해당거래로 인식할 매출액은 ₩50,000이다.

④ (주)서울은 20X2년 3월 31일 해당거래로 인식할 매출액은 ₩58,000이다.

**정답 4번**

### 출제 포인트

환매조건부 판매에서 판매자가 콜옵션을 가지고 있고 환매가격이 최초 판매가격보다 높으면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되지 않아 금융약정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 사례 정리

핵심 사실 1: 20X1년 12월 1일 A제품을 50,000원에 인도하고 현금을 수령하였다.
핵심 사실 2: 판매자인 (주)서울이 20X2년 3월 31일 58,000원에 다시 살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핵심 사실 3: 환매가격 58,000원은 최초 판매가격 50,000원보다 높고, 옵션은 만기일에 행사되지 않았다.

### 핵심 개념

환매약정에서 판매자의 선도계약 또는 콜옵션이 있으면 고객은 자산에 대한 통제를 최종적으로 취득하지 못할 수 있다.
이때 환매가격이 최초 판매가격보다 높으면 거래 실질은 자산 판매가 아니라 자금 차입에 가까우므로 금융약정으로 처리하고, 받은 대가와 환매가격의 차이는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콜옵션 보유'와 '환매가격이 최초 판매가격보다 큼'이라는 두 조건이 핵심이다.
따라서 20X1년 12월 1일에는 매출을 인식하지 않고 금융부채를 인식하며, 옵션이 소멸하는 20X2년 3월 31일에 금융부채를 제거하면서 매출을 인식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리스계약이 아니다. 판매자의 콜옵션이 있고 환매가격이 최초 판매가격보다 높으므로 금융약정으로 본다. 틀린 표현은 '리스계약'이고, 올바르게는 '금융약정으로 회계처리한다'이다.
② X: 20X1년 12월 31일에도 이자비용이 발생한다. 받은 현금 50,000원과 환매가격 58,000원의 차이는 금융조달원가이므로 기간 경과에 따라 이자비용을 인식한다. 틀린 표현은 '이자비용은 없다'이고, 올바르게는 '보유기간 동안 이자비용을 인식한다'이다.
③ X: 20X1년 12월 1일에는 매출액 50,000원을 인식하지 않는다.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된 판매가 아니라 금융약정이므로 현금 수령액은 금융부채로 처리한다. 틀린 표현은 '매출액은 50,000원이다'이고, 올바르게는 '매출은 인식하지 않고 금융부채를 인식한다'이다.
④ O: 20X2년 3월 31일 콜옵션이 행사되지 않아 판매자의 환매권이 소멸하면 그때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매출을 인식한다. 금융부채 장부금액은 기간 중 이자 누적으로 58,000원까지 증가하므로 인식할 매출액은 58,000원이다.

### 오답 포인트

①과 ③은 '인도하고 현금을 받았다'는 겉모습만 보면 일반 판매처럼 보인다는 점을 노린 선지이다. 그러나 환매가격이 최초 판매가격보다 높다는 조건이 붙는 순간 실질은 금융약정으로 바뀐다. ②는 금융약정인데도 매출거래처럼 생각해 이자 인식을 놓치는 경우를 노린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환매조건부 거래는 먼저 누가 환매권을 가지는지, 다음으로 환매가격이 최초 판매가격보다 큰지 작은지를 본다. 판매자가 콜옵션을 가지고 있고 환매가격이 최초 판매가격보다 크면 매출이 아니라 금융약정이라고 판단한다. 옵션이 소멸할 때까지는 자산과 금융부채를 유지한다.

### 암기 포인트

판매자 콜옵션 + 환매가 > 최초판매가 = 금융약정, 기간 중 이자비용, 만기 소멸 시 매출 인식.

NoteBase

**문 7. 투자부동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② 장래 자가사용할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토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한다고 보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③ 투자부동산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자산과는 거의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자가사용부동산과 구별된다.

④ 부동산 중 일부분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일부분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모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투자부동산과 자가사용부동산의 구분 기준, 특히 미결정 토지와 복합사용 부동산의 분류 원칙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이다.
자가사용부동산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제공 또는 관리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다.
복합사용 부동산은 투자 목적 부분과 자가사용 부분을 함께 가지며, 부분별 분리 가능성과 자가사용 부분의 중요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진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20 · 10월**

**선지별 해설**

① O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토지는 투자부동산의 대표적 예시이므로 옳다.

② O
장래 자가사용할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할지 결정하지 못한 토지는 현재 자가사용이나 재고 목적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시세차익을 위한 보유로 보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므로 옳다.

③ O
투자부동산은 다른 자산이나 영업활동과 결합되지 않고도 임대료나 가치상승을 통해 거의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한다. 이 점에서 생산·제공·관리활동과 결합되어 현금흐름을 만드는 자가사용부동산과 구별되므로 옳다.

④ X
틀린 부분은 "동 부동산은 모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이다.
실제로는 일부는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목적이고 일부는 생산·제공·관리목적이라면 무조건 전부 투자부동산이 되지 않는다. 부분별로 별도 매각이 가능하거나 금융리스로 별도 제공이 가능하면 투자 목적 부분만 투자부동산이고 나머지는 자가사용부동산이다. 부분별 분리가 불가능하면 자가사용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 때만 전체를 투자부동산으로 본다.

**오답 포인트**

④의 "모두"가 함정이다. 복합사용 부동산은 일부에 투자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를 투자부동산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또한 ②의 미결정 토지는 재고자산이나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바로 넘기지 않고 투자부동산으로 본다는 점도 자주 혼동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동산 문제는 먼저 보유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대수익·시세차익이면 투자부동산이고 생산·제공·관리목적이면 자가사용부동산이다. 한 부동산에 두 목적이 섞이면 부분별 분리 가능 여부를 먼저 보고, 분리가 안 되면 자가사용 부분의 중요성을 추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투자부동산은 임대·시세차익 목적, 복합사용은 분리 가능하면 나누고 분리 불가능하면 자가사용 부분의 중요성으로 판단한다.

NoteBase

**문 8. (주)서울이 20X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500,000, 매년 말 액면이자 8%, 3년 만기인 사채를 할인발행하였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한다. 20X1년 말과 20X2년 말 사채 장부금액이 <보기>와 같고, 해당 사채가 만기상환 되었다고 할 때, (주)서울이 20X2년부터 20X3년까지 2년간 사채와 관련하여 인식한 총 이자비용은?**

<보기>

- 20X1년 말 사채 장부금액 = ₩482,600
- 20X2년 말 사채 장부금액 = ₩490,900

① ₩86,500

② ₩89,100

③ ₩97,400

④ ₩106,500

**정답 3번**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효이자율법에서 남은 기간의 총 이자비용을 장부금액의 증가분과 현금이자를 이용해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 조건 정리

액면금액은 500,000원이다.
매년 말 현금이자는 500,000원 × 8% = 40,000원이다.
20X1년 말 장부금액은 482,600원이고 20X2년 말 장부금액은 490,900원이다.
20X2년부터 20X3년까지 2년간의 총 이자비용을 구해야 한다.

### 사용할 공식

이자비용은 현금이자와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의 합이다.
남은 기간 총 이자비용 = 남은 기간 현금이자 총액 + 남은 기간 할인발행차금 상각 총액이다.
이 문제는 20X1년 말 이후 만기까지의 장부금액 증가분이 곧 남은 할인발행차금 상각 총액이므로 이 공식을 바로 적용할 수 있다.

NoteBase

**계산 과정**

20X2년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490,900원 - 482,600원 = 8,300원이다.
따라서 20X2년 이자비용은 40,000원 + 8,300원 = 48,300원이다.
20X3년 말 만기상환 시 장부금액은 500,000원이므로 20X3년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500,000원 - 490,900원 = 9,100원이다.
따라서 20X3년 이자비용은 40,000원 + 9,100원 = 49,100원이다.
그러므로 20X2년부터 20X3년까지 총 이자비용은 48,300원 + 49,100원 = 97,400원이다.
같은 뜻으로 보면 남은 기간 총 이자비용은 80,000원 + $500,000 - 482,600$ = 80,000원 + 17,400원 = 97,400원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총 이자비용이 86,500원이다'가 틀렸다. 20X2년부터 20X3년까지의 현금이자 80,000원과 남은 할인발행차금 상각 17,400원을 합하면 97,400원이므로 올바르게는 '총 이자비용은 97,400원이다'이다.
2번 X: '총 이자비용이 89,100원이다'가 틀렸다. 20X2년 이자비용 48,300원과 20X3년 이자비용 49,100원을 모두 반영해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총 이자비용은 97,400원이다'이다.
3번 O: 20X2년 이자비용 48,300원과 20X3년 이자비용 49,100원의 합이 97,400원이므로 옳다.
4번 X: '총 이자비용이 106,500원이다'가 틀렸다. 만기까지 남은 장부금액 증가분은 17,400원뿐이어서 총 이자비용은 80,000원 + 17,400원 = 97,4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장부금액 증가분을 한 해치만 보거나, 남은 기간 전체 상각액을 구하지 않고 현금이자에 임의의 금액을 더하면 오답이 된다.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은 '남은 2년 전체'를 묻는데 한 연도의 수치만 보고 끝내는 실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효이자율법 사채 문제는 먼저 구간을 확인하고, 그 구간의 총 현금이자와 장부금액 증가분을 합해 총 이자비용을 계산한다. 연도별 장부금액이 주어지면 전기말 장부금액에서 만기금액까지의 차이를 남은 상각액으로 본다.

**암기 포인트**

할인발행 사채의 이자비용은 현금이자보다 크고, 그 차이는 장부금액 증가분이다.

NoteBase

**문 9.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②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삼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없다.

③ 제삼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충당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증액하고 해당 증가금액은 차입원가로 인식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충당부채의 후속측정, 제삼자 변제의 표시 방법, 현재가치 측정 시 기간경과분의 처리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에서 생긴 현재의무로서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는 부채이다.
충당부채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잔액을 재검토하여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로 조정한다.
제삼자 변제와 관련된 권리는 충당부채 자체를 없애지 않으므로 별도 자산으로 본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측정한 경우 기간 경과로 늘어나는 금액은 할인 효과의 환입분으로서 차입원가로 인식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충당부채는 매 보고기간 말에 다시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해 조정한다. 의무 규모나 자원유출 예상이 바뀌면 잔액도 함께 수정된다.

② X
틀린 부분은 "상계하여 표시할 수 없다"이다.
실제로는 제삼자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이 있으면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충당부채 관련 비용과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변제권은 부채와 직접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자산으로 인식한다.

③ O
제삼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그 금액을 대신 지급할 현재의무가 없다면 그 부분은 기업의 충당부채가 아니다.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의무만 충당부채에 포함한다.

④ O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면 시간 경과에 따라 할인 효과가 풀리면서 장부금액이 증가한다. 이 증가분은 기간경과에 따른 차입원가로 인식한다.

### 오답 포인트

②는 제삼자 변제와 관련된 금액을 아예 상계할 수 없다고 단정한 점이 함정이다. 변제권 자산을 부채와 직접 없애는 것과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관련 비용을 순액 표시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 이 둘을 섞으면 틀리기 쉽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충당부채 문항은 매기말 재측정 여부, 제삼자 변제의 별도 자산 인식과 손익 순액 표시 가능 여부, 현재가치 할인분의 기간경과 처리라는 세 기준으로 나누어 판단하면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다.

### 암기 포인트

충당부채는 매기말 재측정, 변제권은 별도 인식, 할인차금 환입은 차입원가이다.

NoteBase

**문 10. <보기>는 토지의 공정가치 변동자료이다. (주)서울은 토지를 20X0년 7월 중에 취득하고 계속 보유 중이다. 동 토지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는 경우와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 각각 기말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서울은 토지 회계처리 시 투자부동산의 경우 공정가치 모형을, 유형자산의 경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보기>

• 20X0년 7월 중 취득 시 공정가치: ₩100,000

• 20X0년 12월 31일 공정가치: ₩150,000

① 투자부동산으로 분류: 변화없음, 유형자산으로 분류: 변화없음

② 투자부동산으로 분류: 변화없음, 유형자산으로 분류: ₩50,000 증가

③ 투자부동산으로 분류: ₩50,000 증가, 유형자산으로 분류: 변화없음

④ 투자부동산으로 분류: ₩50,000 증가, 유형자산으로 분류: ₩50,000 증가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토지의 공정가치 상승분이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에서는 당기손익으로,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에서는 재평가잉여금으로 반영된다는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 보고기간말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바로 반영하는 모형이다. 키워드는 당기손익이다.
유형자산 재평가모형: 재평가 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의 재평가잉여금으로 누적하는 모형이다. 키워드는 기타포괄손익, 재평가잉여금이다.
이 문제에서는 토지의 공정가치가 10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50,000원 상승하므로 투자부동산이면 이익잉여금이 50,000원 증가하고, 유형자산이면 이익잉여금은 변하지 않는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20 · 10월**

**선지별 해설**

① X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면 공정가치 상승 50,000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기말 이익잉여금은 50,000원 증가한다. 틀린 표현은 투자부동산 쪽의 "변화없음"이다. 올바르게는 "50,000원 증가"이다.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면 재평가증가액은 재평가잉여금으로 가므로 이익잉여금은 변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맞는 설명이다.

② X
투자부동산 쪽의 "변화없음"이 틀리다. 공정가치모형에서는 50,000원 평가이익이 당기손익으로 반영되어 기말 이익잉여금이 50,000원 증가한다.
유형자산 쪽의 "50,000원 증가"도 틀리다. 재평가모형의 증가액은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을 거쳐 재평가잉여금으로 누적된다. 올바르게는 "변화없음"이다.

③ O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므로 50,000원 상승분이 당기손익으로 들어가 기말 이익잉여금이 50,000원 증가한다.
유형자산은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므로 50,000원 상승분이 재평가잉여금으로 반영되고 이익잉여금은 변하지 않는다.

④ X
투자부동산 쪽의 "50,000원 증가"는 맞다.
하지만 유형자산 쪽의 "50,000원 증가"가 틀리다. 재평가증가액은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인 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된다. 올바르게는 "변화없음"이다.

**오답 포인트**

토지의 가치가 50,000원 올랐다는 사실만 보고 두 경우 모두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고 연결하면 ④로 흐르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같은 가치상승이라도 투자부동산은 당기손익,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은 기타포괄손익이라는 인식 경로가 다르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치변동 문제는 금액 계산보다 먼저 어디로 인식되는지를 본다. 당기손익으로 가면 기말 이익잉여금에 반영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가면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간다고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투자부동산 공정가치모형은 손익,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은 재평가잉여금이다.

NoteBase

**문 11. <보기>는 (주)서울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재고자산에 대한 원가흐름의 가정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 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 대비 매출원가의 감소액은? (단, 재고자산과 관련된 감모손실이나 평가손실 등 다른 원가는 없으며, (주)서울은 재고자산 매매거래에 대해 계속기록법을 적용한다.)**

<보기>

| 일자 | 구분 | 수량 | 매입단가 |
|---|---|---|---|
| 1월 1일 | 기초재고 | 100개 | ₩10 |
| 5월 8일 | 매입 | 50개 | ₩13 |
| 8월 23일 | 매출 | 80개 | |
| 11월 15일 | 매입 | 30개 | ₩14 |

① ₩80

② ₩120

③ ₩200

④ ₩24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계속기록법에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의 매출원가를 각각 계산한 뒤 그 차이를 구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기초재고 100개, 단가 10원
- 5월 8일 매입 50개, 단가 13원
- 8월 23일 매출 80개
- 11월 15일 매입 30개, 단가 14원

구해야 할 값:
- 선입선출법 적용 시 평균법 대비 매출원가 감소액

주의할 조건:
- 계속기록법이므로 매출 시점 직전의 재고원가로 계산한다.
- 11월 15일 매입은 8월 23일 매출 뒤에 일어나므로 이번 매출원가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사용할 공식**

선입선출법 매출원가 = 먼저 들어온 재고부터 출고한 금액이다.
이동평균법 매출원가 = 매출 시점 직전 평균단가 × 매출수량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계속기록법에서는 매출이 발생한 시점마다 원가흐름 가정에 따라 바로 매출원가를 계산해야 하므로, 8월 23일 시점의 재고구성과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계산 과정**

1. 8월 23일 매출 직전 재고는 기초재고 100개 1,000원과 5월 8일 매입 50개 650원으로 총 150개, 1,650원이다.
2. 이동평균법의 평균단가는 1,650원 ÷ 150개 = 11원이다. 따라서 매출원가는 80개 × 11원 = 880원이다.
3. 선입선출법에서는 먼저 들어온 기초재고부터 판매하므로 80개 × 10원 = 800원이다.
4.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평균법 대비 매출원가 감소액은 880원 - 800원 = 80원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회계학 · 2020 · 10월**

**선지별 해설**

① O
- 계산 결과 감소액은 80원이므로 맞다.
- 선입선출법 매출원가 800원, 평균법 매출원가 880원의 차이가 80원이다.

② X
- 120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므로 틀리다.
- 120원이 아니라 80원이 옳다.
- 이 선택지는 11월 15일 매입 30개를 이번 매출원가 계산에 잘못 끌어들였을 때 흔히 고르는 값이다.

③ X
- 200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므로 틀리다.
- 200원이 아니라 80원이 옳다.
- 이 선택지는 선입선출법에서 기초재고 20개와 평균단가 차이 10원을 곱하는 식으로 비교 대상을 잘못 잡았을 때 나올 수 있다.

④ X
- 240원은 계산 결과와 다르므로 틀리다.
- 240원이 아니라 80원이 옳다.
- 이 선택지는 평균단가 11원과 선입선출 단가 8원처럼 단가 차이를 잘못 계산하거나, 감소액과 기말재고 차이를 혼동했을 때 나올 수 있다.

**오답 포인트**

계속기록법이라는 조건을 놓치고 연말의 모든 매입을 한꺼번에 평균내면 오답이 된다. 이 문항은 8월 23일 매출 시점 이전 재고만으로 평균단가를 구해야 하는데, 뒤의 11월 15일 매입까지 섞는 실수를 노린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고자산 계산형 문항은 먼저 매출 시점을 기준으로 재고를 끊고, 그 시점 이전 수량과 금액만 모은다. 그다음 선입선출법은 오래된 재고부터, 평균법은 직전 평균단가로 계산한 뒤 두 금액의 차이를 비교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계속기록법 평균단가는 매출 시점 직전 재고금액 ÷ 재고수량이며,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재고가 먼저 나간다.

NoteBase

**문 12. 수익인식 시점이 재화·용역의 판매시점인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반품가능 재화의 판매로서 반품 관련 위험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② 수탁자가 재화의 소유에 따른 효익과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위탁자의 대리인으로서 재화를 맡아서 판매하는 위탁판매

③ 할부대금의 회수가 장기에 걸쳐 분할되어 있는 장기할부판매

④ 상품권발행 후 재화를 인도하고 상품권을 받은 경우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거래 유형별로 수익을 판매시점에 인식하는 경우와 불확실성이 해소된 뒤에 인식하는 경우를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판매시점 수익인식은 재화가 인도되고 중요한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며 대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적용된다.
반품가능판매는 예상 반품액이나 반품 관련 위험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판매시점 인식이 가능하고, 추정할 수 없으면 인식을 미룬다.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대리인일 뿐이므로 위탁자가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은 수탁자에게 넘긴 때가 아니라 최종 고객에게 판매된 때이다.
장기할부판매는 판매 자체는 판매시점에 인식하고, 장기간 회수에 따른 이자성 요소는 기간에 따라 별도로 인식한다.
상품권은 발행 시점이 아니라 실제 재화를 인도하여 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반품가능 재화의 판매에서 반품 관련 위험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면 판매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틀린 부분은 이 거래를 판매시점 인식 사례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반품불확실성이 해소되거나 반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② O: 위탁판매에서 수탁자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효익과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대리인이다. 따라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보낸 시점이 아니라 수탁자가 외부 고객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므로 판매시점 인식 사례에 해당한다.
③ O: 장기할부판매는 대금 회수가 장기에 걸쳐 이루어져도 재화의 판매는 판매시점에 성립하므로 매출수익은 그 시점에 인식한다. 틀리기 쉬운 부분은 현금회수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수익 전체를 나중에 인식한다고 보는 점인데, 올바르게는 이자성 부분만 기간에 따라 나누어 인식한다.
④ O: 상품권 발행만으로는 아직 재화를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수익이 아니다. 그러나 상품권을 받고 실제 재화를 인도한 시점은 수행의무가 이행된 때이므로 판매시점 수익인식 사례가 맞다.

### 오답 포인트

수험생은 현금이 늦게 들어오거나 상품권이 먼저 발행되면 모두 판매 이후에 수익을 인식한다고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은 현금회수 시기보다 재화 이전과 불확실성의 정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며, 특히 ①은 반품위험을 추정할 수 없다는 문구 때문에 판매시점 인식이 배제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재화가 실제로 이전되어 판매가 성립했는지를 본다. 다음으로 반품, 회수불능, 미이행 의무처럼 수익금액이나 거래완결성을 흔드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지를 본다. 재화 이전이 끝나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판매시점 인식이고, 반품위험 등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면 판매시점 인식이 아니다.

### 암기 포인트

반품추정 불가는 판매시점 인식이 아니고, 위탁판매의 최종판매 시점과 장기할부판매의 매출 시점, 상품권 사용 후 재화 인도 시점은 판매시점 인식이다.

NoteBase

**문 13. 12월 결산법인 (주)서울은 20X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 표시이자율 연 2%, 2년 만기 전환사채를 ₩97,000에 할인발행하였다. 이자는 매년 말 지급된다.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전환사채의 만기일에 상환할증금 ₩10,000을 액면금액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전환권이 없는 유사한 채무상품에 대한 현행시장이자율은 10%(기간 2, 단일금액의 현가계수는 0.8, 연금의 현가계수는 1.5)일 때 전환사채 발행일 전환권 대가는?**

① ₩3,000

② ₩6,000

③ ₩8,000

④ ₩10,000

**정답 2번**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전환권이 없는 유사 사채의 현재가치로 부채요소를 먼저 계산하고, 발행가액과의 차이로 전환권 대가를 구하는 문제이다.

###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액면금액 100,000원, 연이표이자 2%이므로 매년 이자지급액은 2,000원이다.
만기 2년이며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만기에 액면금액 100,000원과 상환일증금 10,000원을 합한 110,000원을 지급한다.
전환권이 없는 유사 사채의 시장이자율은 10%이고, 기간 2의 단일금액 현가계수는 0.8, 연금현가계수는 1.5이다.
구해야 할 값:
발행가액 97,000원 중 전환권 대가이다.
주의할 조건:
전환권 대가는 전체 발행가액에서 부채요소의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 사용할 공식

부채요소 현재가치 = 이자지급액의 현재가치 + 만기상환액의 현재가치
부채요소 = 2,000 × 1.5 + 110,000 × 0.8
전환권 대가 = 발행가액 - 부채요소
전환권 대가 = 97,000 - 부채요소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전환사채를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분리할 때, 부채요소를 전환권이 없는 유사 사채의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먼저 측정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매년 지급할 이자 2,000원의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2,000 \times 1.5 = 3,000$

2. 만기상환액 110,000원의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110,000 \times 0.8 = 88,000$

3. 부채요소의 가치는 두 금액의 합계이다.

$3,000 + 88,000 = 91,000$

4. 발행가액 97,000원에서 부채요소 91,000원을 차감하면 전환권 대가가 된다.

$97,000 - 91,000 = 6,000$

**선지별 해설**

① X

전환권 대가가 3,000원이라는 값은 틀리다. 3,000원은 이표이자 2,000원을 연금현가계수 1.5로 할인한 이자지급액의 현재가치일 뿐이고, 전환권 대가는 아니다. 올바르게는 부채요소 전체 91,000원을 계산한 뒤 발행가액 97,000원과의 차이 6,000원을 구해야 한다.

② O

부채요소는 이자 현재가치 3,000원과 만기상환액 현재가치 88,000원의 합계 91,000원이다. 따라서 전환권 대가는 97,000원 - 91,000원 = 6,000원이므로 맞다.

③ X

전환권 대가가 8,000원이라는 값은 틀리다. 8,000원은 상환일증금 10,000원에 단일금액 현가계수 0.8을 곱한 값으로, 만기 프리미엄 부분의 현재가치만 따로 본 수치이다. 올바르게는 액면상환액 100,000원과 상환일증금 10,000원을 합한 110,000원을 할인하여 부채요소에 포함해야 하므로 전환권 대가는 6,000원이다.

④ X

전환권 대가가 10,000원이라는 값은 틀리다. 10,000원은 만기 상환일증금의 명목금액일 뿐 현재가치도 아니고 전환권 대가도 아니다. 올바르게는 상환일증금도 시장이자율 10%로 할인하여 부채요소를 계산한 뒤, 남는 금액인 6,000원을 전환권 대가로 본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상환일증금 10,000원을 전환권 대가로 오인하거나, 이자 현재가치 3,000원만 따로 떼어 자본요소로 착각하는 데 있다. 전환사채의 전환권 대가는 남는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이므로, 먼저 부채요소를 시장이자율로 전부 할인해 합산해야 한다.

NoteBase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환사채 분리 문제는 발행가액을 바로 보지 않고, 먼저 전환권이 없는 유사 사채라고 가정한 부채요소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그다음 발행가액에서 그 부채요소를 차감해 자본요소인 전환권 대가를 구하면 된다.

### 암기 포인트

전환사채의 전환권 대가 = 발행가액 - 유사사채 부채요소 현재가치이다.

NoteBase

**문 14. (주)서울은 발생기준회계를 적용하고 있다. 20X0년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이자비용은 ₩65,000이다. 20X0년 동안 현금으로 지급된 이자는 ₩58,000이다. 20X0년 기초 시점의 미지급이자가 ₩12,000이고, 20X0년 기초, 기말 시점의 선급이자가 각각 ₩1,800과 ₩1,400일 때, 20X0년 기말 시점의 미지급이자는?**

① ₩11,600

② ₩12,400

③ ₩18,600

④ ₩19,400

**정답 3번**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발생주의에서 이자비용, 현금지급이자, 미지급이자, 선급이자의 관계를 이용해 기말 미지급이자를 구하는 문제이다.

###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이자비용 65,000원,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 58,000원, 기초 미지급이자 12,000원, 기초 선급이자 1,800원, 기말 선급이자 1,400원이다.
구해야 할 값은 20X0년 기말 미지급이자이다.
주의할 조건은 발생주의이므로 현금지급액에 미지급이자와 선급이자 변동을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 사용할 공식

$E = C + A_1 - A_0 + P_0 - P_1$
여기서 $E$는 이자비용, $C$는 현금지급이자, $A$는 미지급이자, $P$는 선급이자이다.
이 공식은 발생주의 비용이 현금지급액에 미지급이자 증감과 선급이자 증감을 조정한 값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용한다.

### 계산 과정

1. 선급이자는 1,800원에서 1,400원으로 400원 감소했으므로 당기 비용에 400원이 추가 반영된다.
2. 식에 값을 대입하면 $65,000 = 58,000 + A_1 - 12,000 + 1,800 - 1,400$이다.
3. 정리하면 $65,000 = 46,400 + A_1$이다.
4. 따라서 $A_1 = 18,600$이므로 기말 미지급이자는 18,600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11,600원을 대입하면 58, 000 + 11, 600 − 12, 000 + 1, 800 − 1, 400 = 58, 000원이 되어 손익계산서 이자비용 65,000원과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11,600원"이고, 올바르게는 18,600원이다.
② X: 12,400원을 대입하면 58, 000 + 12, 400 − 12, 000 + 1, 800 − 1, 400 = 58, 800원이 되어 이자비용 65,000원을 설명하지 못한다. 틀린 표현은 "12,400원"이고, 올바르게는 18,600원이다.
③ O: 18,600원을 대입하면 58, 000 + 18, 600 − 12, 000 + 1, 800 − 1, 400 = 65, 000원이 되어 주어진 이자비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③이 옳다.
④ X: 19,400원을 대입하면 58, 000 + 19, 400 − 12, 000 + 1, 800 − 1, 400 = 65, 800원이 되어 이자비용보다 800원 크게 나온다. 틀린 표현은 "19,400원"이고, 올바르게는 18,600원이다.

**오답 포인트**

현금지급이자와 비용의 차이 7,000원만 보고 바로 미지급이자로 처리하면 선급이자 감소 400원을 놓치게 된다. 이 문항은 미지급이자와 선급이자를 한쪽만 조정하는 실수를 노린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간비용 계산형은 먼저 현금지급액과 비용을 구분하고, 그다음 미지급이자는 기말-기초, 선급이자는 기초-기말 방향으로 조정해 식을 세우면 된다.

**암기 포인트**

발생주의 비용은 현금지급액에 미지급은 더하고 선급은 빼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NoteBase

**문 15. ㈜서울은 20X1년 1월 1일 ㈜경기의 발행주식 40%를 ₩800,000에 취득하여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20X1년 1월 1일 ㈜경기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1,500,000이었으며, ㈜경기의 건물 장부금액은 공정가치보다 ₩300,000 과소평가되었다. 과소평가된 건물의 잔존내용연수는 6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된다고 가정한다. ㈜경기의 20X1년 당기순이익은 ₩100,000, 20X2년 당기순이익은 ₩200,000일 경우 20X2년 12월 31일 ㈜서울이 보고할 관계기업투자주식은?**

① ₩800,000

② ₩820,000

③ ₩880,000

④ ₩920,000

**정답 3번**

### 출제 포인트

취득원가와 피투자회사 순자산지분액의 차이를 식별가능 자산의 공정가치 차이와 잔여차액으로 나누고, 공정가치 차이는 내용연수 동안 추가감가상각으로 반영하는 지분법 계산을 묻는 문제이다.

###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취득원가 800,000원, 지분율 40%, 취득일 순자산 장부금액 1,500,000원, 건물 공정가치 초과액 300,000원, 건물 잔존내용연수 6년, 20X1 순이익 100,000원, 20X2 순이익 20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20X2년 12월 31일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이다.
주의할 조건: 배당 정보가 없으므로 배당에 따른 장부금액 감소는 없다고 본다.

### 사용할 공식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 지분법이익 누계를 더하고, 취득차이 중 상각 대상 공정가치 차이에 대한 추가감가상각 누계를 차감하여 구한다.
관계기업투자주식 = 취득원가 + 당기순이익지분누계 - 추가감가상각누계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취득차이 중 건물의 공정가치 초과분은 지분법 적용 기간 동안 건물 감가상각에 맞추어 비용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취득일 순자산지분액은 1,500,000원 × 40% = 600,000원이다. 따라서 총 취득차이는 800,000원 - 600,000원 = 200,000원이다.
2. 건물 관련 취득차이는 300,000원 × 40% = 120,000원이다. 나머지 80,000원은 별도 상각 정보가 없으므로 그대로 둔다.
3. 건물 추가감가상각은 연간 120,000원 ÷ 6년 = 20,000원이다.
4. 20X1 지분법이익은 100,000원 × 40% - 20,000원 = 20,000원이다. 따라서 20X1말 장부금액은 800,000원 + 20,000원 = 820,000원이다.
5. 20X2 지분법이익은 200,000원 × 40% - 20,000원 = 60,000원이다. 따라서 20X2말 장부금액은 820,000원 + 60,000원 = 880,000원이다.

**선지 판단**

1번 X: 800,000원은 취득원가 그대로의 금액이다. 20X1과 20X2의 지분법이익 반영이 빠졌다. 올바르게는 880,000원이다.
2번 X: 820,000원은 20X1말 장부금액이다. 20X2의 지분법이익 60,000원을 추가로 반영해야 하므로 20X2말 금액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880,000원이다.
3번 O: 20X2말 장부금액은 880,000원이므로 정답이다.
4번 X: 920,000원은 20X1과 20X2의 순이익지분 40,000원과 80,000원을 모두 더하면서 건물 추가감가상각 20,000원씩 2년치, 총 40,000원을 차감하지 않은 값이다. 올바르게는 88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총 취득차이 200,000원을 전부 같은 성격으로 처리하면 틀린다. 건물 공정가치 초과분 120,000원은 내용연수 6년에 걸쳐 추가감가상각으로 차감해야 하고, 이 조정을 빼먹으면 4번처럼 920,000원이 나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분법 계산형은 취득원가에서 시작해 취득일 순자산지분액과의 차이를 먼저 분해한 뒤, 상각 대상 공정가치 차이가 있으면 연간 추가상각액을 구하고, 매년 순이익지분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여 누적한다.

**암기 포인트**

지분법 취득차이는 식별가능 자산 공정가치 차이부터 분해하고, 상각 대상 차이는 매년 순이익지분에서 차감한다.

NoteBase

**문 16. <보기>는 단일제품을 생산하여 개당 ₩50에 판매하는 (주)서울(20X1년 초 설립)의 20X1년도 제조원가와 생산량에 대한 자료이다. (주)서울의 20X1년도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600,000일 때,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단, 판매관리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보기>
•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10
•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8
•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12
• 연간 총 고정제조간접원가 ₩1,000,000
• 당기 생산량 100,000개

① ₩400,000
② ₩600,000
③ ₩800,000
④ ₩1,000,000

**정답 3번**

### 출제 포인트

변동원가계산과 전부원가계산의 영업이익 차이는 기말재고에 이연된 고정제조간접원가라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 조건 정리

판매가격: 50원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직접재료 10원 + 직접노무 8원 + 변동제조간접원가 12원 = 30원
연간 총 고정제조간접원가: 1,000,000원
당기 생산량: 100,000개
주어진 값: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 600,000원
주의할 조건: 기초재고는 없고 판매관리비는 발생하지 않는다.

### 사용할 공식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은 다음 식으로 본다.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 = 판매수량 × (판매가격 -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 총 고정제조간접원가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은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에 기말재고에 이연된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더한 값이다.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 =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 + 기말재고수량 ×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두 방법의 차이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재고에 포함하느냐의 여부뿐이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단위당 공헌이익은 50원 - 30원 = 20원이다.
2.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 600,000원은 판매수량 × 20원 - 1,000,000원과 같으므로 판매수량은 80,000개이다.
3. 기말재고수량은 생산량 100,000개 - 판매수량 80,000개 = 20,000개이다.
4.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1,000,000원 / 100,000개 = 10원이다.
5. 기말재고에 이연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20,000개 × 10원 = 200,000원이다.
6. 따라서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은 6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이다.

**선지 판단**

1번 X: 400,000원은 기말재고가 증가했는데도 재고에 남은 고정제조간접원가 200,000원을 더하지 않고 반대로 차감한 값이다.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은 80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2번 X: 600,000원은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을 그대로 적은 값이다. 기말재고 20,000개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200,000원을 더해야 하므로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은 800,000원이다.
3번 O: 전부원가계산은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200,000원을 비용에서 이연하므로 6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이 맞다.
4번 X: 1,000,000원은 총 고정제조간접원가 전체를 이익 차이로 착각한 값이다. 실제 차이는 기말재고 20,000개에 배부된 200,000원뿐이므로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은 800,000원이다.

**오답 포인트**

기말재고가 늘면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보다 커진다는 방향을 놓치기 쉽다. 2번처럼 조정을 빼먹거나 1번처럼 차이를 반대로 빼면 틀리고, 4번처럼 총 고정제조간접원가 전액이 차이라고 보면 과대계상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변동원가계산 값이 주어지면 먼저 판매수량을 역산하고, 생산량과 비교해 재고 증감 방향을 확인한 다음, 재고증감수량 ×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만큼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을 조정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기말재고 증가이면 전부원가계산 이익이 더 크고, 두 방법의 이익 차이는 재고증가수량 ×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이다.

NoteBase

**문 1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단기리스나 소액기초자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을 리스로 인식하지 않고 회계처리 할 수 있다. 단기리스나 소액기초자산리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단기리스란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다.

② 소액기초자산리스 여부의 평가는 리스이용자의 규모, 특성,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③ 소액기초자산은 다른 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지는 않다.

④ 리스이용자가 소액기초자산 그 자체를 사용하여 효익을 얻거나 리스이용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 그 자산을 사용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단기리스와 소액기초자산리스의 인식 예외 요건, 특히 소액기초자산 판단이 리스이용자 기준이 아니라 자산 자체 기준이라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단기리스는 개시일 현재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로 보는 기간 중심 예외이다.
소액기초자산리스는 기초자산이 새것일 때의 가치와 자산 자체의 성격을 기준으로 보는 자산 중심 예외이다.
소액기초자산은 다른 자산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아 독립적으로 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 사용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짧은 리스에 대한 예외로, 핵심 판단축은 12개월 이하라는 기간 요건이다. 선지는 단기리스의 핵심 개념을 맞게 설명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리스이용자의 규모, 특성,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이다. 소액기초자산 여부는 리스이용자가 큰 기업인지 작은 기업인지와 무관하며, 기초자산 자체를 새것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저가 자산인지로 판단한다.

③ O
소액기초자산은 다른 자산에 대한 의존도나 상호연계성이 매우 높지 않아야 한다. 다른 자산 없이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이면 소액기초자산 예외 적용이 어렵다.

④ O
소액기초자산은 그 자산만으로 효익을 얻을 수 있거나, 리스이용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 사용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독립적 사용 가능성을 묻는 설명으로 옳다.

### 오답 포인트

소액기초자산 판단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은 '누가 쓰느냐'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점이다. 이 문항의 ②처럼 리스이용자의 규모나 상황을 끌어오면 틀리고, 자산 자체가 저가인지와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지가 기준이 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기리스가 나오면 먼저 기간 요건을 본다. 소액기초자산리스가 나오면 리스이용자 사정은 지우고 자산 자체의 가치와 독립 사용 가능성만 확인하면 된다.

### 암기 포인트

단기리스는 기간으로 판단하고, 소액기초자산리스는 자산 자체로 판단한다.

NoteBase

**문 18. (주)서울은 두 종류의 제품 A와 B를 생산하여 판매하며, 각 제품 매출액이 회사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0%이다. 매출액에 대한 변동비는 제품 A가 60%, 제품 B가 40%이다. 총고정비는 ₩100,000이며, 그 밖의 다른 비용은 없다. 총고정비가 20%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10,000의 순이익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매출액은? (단, 세금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130,000

② ₩220,000

③ ₩240,000

④ ₩260,000

**정답 4번**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매출구성비가 주어진 상황에서 가중평균 공헌이익률을 구한 뒤 목표이익을 반영한 필요매출액을 계산하는 CVP 문제이다.

###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제품 A와 B의 매출구성비는 각각 50%, 제품 A의 변동비율은 60%, 제품 B의 변동비율은 40%이다.
주어진 값: 총고정비는 100,000원에서 20% 증가하므로 120,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순이익 10,000원을 달성하기 위한 총매출액이다.
주의할 조건: 제품별 매출구성비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개별 공헌이익률이 아니라 가중평균 공헌이익률을 사용해야 한다.

### 사용할 공식

가중평균 변동비율은 $(0.5 \times 0.6) + (0.5 \times 0.4) = 0.5$이다.
따라서 가중평균 공헌이익률은 $1 - 0.5 = 0.5$이다.
필요매출액은 (고정비 + 목표이익) ÷ 공헌이익률로 계산한다.
이 공식은 매출구성비가 일정한 복수제품 CVP 분석에서 총매출액을 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한다.

### 계산 과정

1. 가중평균 변동비율을 구하면 $(0.5 \times 60\%) + (0.5 \times 40\%) = 50\%$이다.
2. 가중평균 공헌이익률은 $100\% - 50\% = 50\%$이다.
3. 증가한 총고정비는 $100,000 \times 1.2 = 120,000$원이다.
4. 목표 순이익 10,000원을 더한 필요 공헌이익은 130,000원이다.
5. 필요매출액은 $130,000 \div 0.5 = 260,000$원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130,000원은 필요 공헌이익 금액일 뿐 필요매출액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공헌이익액을 매출액으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130,000원을 공헌이익률 50%로 나누어 260,000원을 구해야 한다.
② X: 220,000원은 고정비 증가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 고정비 100,000원에 목표이익 10,000원을 더해 110,000 ÷ 0.5로 계산할 때 나오는 값이다. 틀린 표현은 증가한 고정비를 무시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고정비를 120,000원으로 수정해야 한다.
③ X: 240,000원은 증가한 고정비 120,000원만 반영하고 목표이익 10,000원을 빠뜨려 120,000 ÷ 0.5로 계산할 때 나오는 값이다. 틀린 표현은 목표 순이익을 필요 공헌이익에 포함하지 않은 점이며, 올바르게는 120,000원에 10,000원을 더해야 한다.
④ O: 가중평균 공헌이익률은 50%이고, 필요 공헌이익은 증가한 고정비 120,000원과 목표이익 10,000원을 합한 130,000원이다. 따라서 필요매출액은 130,000 ÷ 0.5 = 260,000원이므로 옳다.

###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세 단계 중 하나를 빼먹게 만드는 데 있다. 첫째, 복수제품이므로 가중평균 공헌이익률을 써야 한다. 둘째, 고정비 20% 증가를 반영해야 한다. 셋째, 목표 순이익 10,000원을 고정비와 함께 필요 공헌이익에 더해야 한다. ②와 ③은 각각 둘째와 셋째 단계를 누락했을 때 나오는 전형적 오답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복수제품 CVP 문제는 먼저 매출구성비로 가중평균 변동비율과 공헌이익률을 구하고, 그다음 증가 또는 감소가 반영된 고정비에 목표이익을 더한 뒤, 마지막에 공헌이익률로 나누는 순서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복수제품 필요매출액은 가중평균 공헌이익률을 구한 뒤 (조정된 고정비 + 목표이익) ÷ 공헌이익률로 계산한다.

NoteBase

**문 19. 지방자치단체 갑(甲)의 재정상태표상 순자산총계는 ₩10억이고, 고정순자산은 ₩6억이며, 특정순자산은 ₩1억이다. 지방자치단체 갑(甲)의 주민편의시설이 ₩2억 증가하였고,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이 ₩1억 증가하였으며, 순자산총계는 ₩3억 증가하였다. 언급한 사항을 제외한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의 변동은 없다고 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갑(甲)의 일반순자산의 변동은?**

① ₩1억 감소

② 변동 없음

③ ₩1억 증가

④ ₩2억 증가

**정답 4번**

### 출제 포인트

순자산총계가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일반순자산으로 나뉜다는 구조를 이용하여, 주민편의시설 증가와 그 취득 관련 장기차입금 증가가 일반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 조건 정리

초기 순자산총계는 10억이고, 고정순자산은 6억, 특정순자산은 1억이다.
초기 일반순자산은 $10 - 6 - 1 = 3$억이다.
추가 변동은 주민편의시설 2억 증가, 그 투자재원을 위한 장기차입금 1억 증가, 순자산총계 3억 증가이다.
언급한 사항 외에는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의 변동이 없다고 본다.

### 사용할 공식

일반순자산은 순자산총계에서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차감하여 구한다.
주민편의시설 같은 고정자산이 증가하면 고정순자산 증가 요인이 되지만, 그 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장기차입금 증가는 고정순자산을 상계하는 요인이 된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순자산총계 증가 3억 중에서 고정순자산으로 귀속되는 몫을 먼저 구한 뒤, 남는 금액을 일반순자산 증가분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초기 일반순자산은 10 − 6 − 1 = 3억이다.
2. 주민편의시설 2억 증가는 고정순자산을 2억 증가시킨다.
3. 그 시설의 취득재원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 1억 증가는 고정순자산을 1억 상계하므로, 고정순자산의 순증가는 2 − 1 = 1억이다.
4. 특정순자산은 변동이 없으므로 증가분이 0억이다.
5. 일반순자산 증가분은 순자산총계 증가 3억에서 고정순자산 증가 1억과 특정순자산 증가 0억을 차감한 값이므로 3 − 1 − 0 = 2억이다.
6. 따라서 기말 일반순자산은 3 + 2 = 5억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일반순자산은 1억 감소가 아니다. 순자산총계가 3억 증가했고 그중 고정순자산이 순증 1억이므로 일반순자산은 2억 증가한다. 틀린 표현은 '1억 감소'이다. 올바르게는 '2억 증가'이다.
② X: 일반순자산은 변동 없음이 아니다. 주민편의시설 증가와 차입금 증가를 함께 반영하면 고정순자산은 1억만 증가하므로, 나머지 2억은 일반순자산 증가분으로 남는다. 틀린 표현은 '변동 없음'이다. 올바르게는 '2억 증가'이다.
③ X: 일반순자산은 1억 증가가 아니다. 1억은 주민편의시설 2억 증가와 장기차입금 1억 증가를 상계한 고정순자산 순증가액일 뿐, 일반순자산 증가액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1억 증가'이다. 올바르게는 '2억 증가'이다.
④ O: 순자산총계 증가 3억에서 고정순자산 순증가 1억을 차감하고 특정순자산 변동이 없음을 반영하면 일반순자산은 2억 증가한다.

**오답 포인트**

주민편의시설 2억 증가만 보고 고정순자산이 2억 늘었다고 단정하면 일반순자산 증가분을 1억으로 잘못 잡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시설 취득 목적의 장기차입금 1억 증가를 반드시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방자치단체 순자산 문제는 먼저 순자산총계,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일반순자산의 연결 구조를 놓고 본다. 그다음 고정자산 증가가 있으면 관련 차입부채가 같이 변했는지를 확인하고, 순증가분만 고정순자산 변화로 반영한 뒤 남는 금액을 일반순자산 증감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순자산총계 증가분은 고정순자산 증가분, 특정순자산 증가분, 일반순자산 증가분으로 나뉜다. 고정자산 취득용 장기차입금 증가는 고정순자산 증가를 일부 상계한다.

NoteBase

**문 20.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회계예산은 특정 사업이나 자금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경우를 위한 예산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일반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된다.

③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④ 특별회계는 행정기관이 자유재량을 갖도록 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의 구분 체계와 설치 근거를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이나 자금, 또는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할 필요가 있을 때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이다.

**핵심 구분**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 재원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운용하는 회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구분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막연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처럼 정확한 회계실체 명칭으로 구분한다.

**선지별 해설**

1번: O.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이나 자금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예산이라는 설명이므로 맞다.
2번: X. 틀린 표현은 "일반특별회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를 "일반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분하는 것은 정확한 명칭이 아니다. 올바른 표현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실체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등으로 구분된다"이다.
3번: O. 특별회계는 임의로 설치하는 회계가 아니라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설치할 수 있으므로 맞다.
4번: O.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이나 자금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목적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법적 범위 안에서 보다 탄력적인 관리와 행정능률 제고라는 취지에 부합한다.

**오답 포인트**

2번의 "일반특별회계"처럼 그럴듯한 용어를 실제 제도상의 분류 명칭으로 착각하면 틀린다. 이 문항은 특별회계의 기능보다도 정확한 회계 구분 명칭을 알고 있는지를 노린 문제이다.

NoteBase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회계제도 문항은 먼저 설치 근거, 다음으로 구분 명칭, 마지막으로 운용 취지를 나누어 본다. 특히 선지에 제도 분류명이 나오면 실제 법령상 명칭인지부터 확인하면 오답을 줄일 수 있다.

### 암기 포인트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조례 근거로 두고, 분류명은 "일반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와 구별되는 기타특별회계·지방공기업특별회계라는 점을 기억한다.

NoteBase